

2023년 11월 12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1 월]

복음화 지향 : 교황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교황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맡겨진 양 떼와 동행해 나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잔칫상에 앉는 합당한 준비로,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서둘러 마중하여 혼인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6,12-16
 <지혜를 찾는 이들은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답송 시편 63(62),2.3-4.5-6.7-8 (◎ 2ㄷ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4,13-18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13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영성체송 시편 23(22), 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영성체 후 묵상
 지혜서 저자는,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지혜의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김상우 바오로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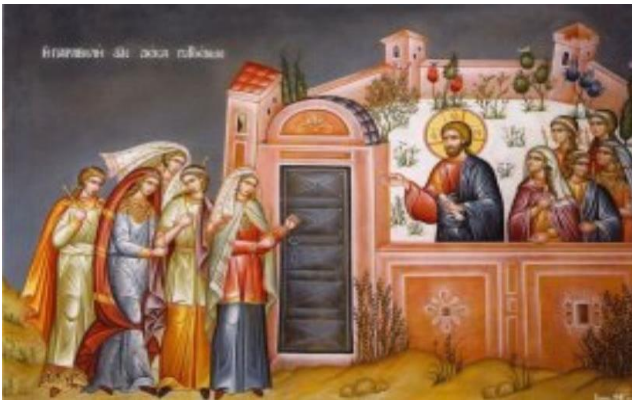
재회의 시간

이번 주일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입니다. 제 1 독서 지혜서의 저자는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구약 전통에서 하느님 말씀인 '토라'(오경, 율법)는 후대에 '지혜'로 변경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던 유대인들의 전통이 '하느님-토라-지혜' 순서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의인화된 지혜를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요한 1,1-18 참조).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뵙게 될 희망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제 2 독서 테살로니카 1 서에서 바오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교우들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 위로 안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복음에서 마태오 복음사가는 열 처녀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종말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라는 신앙의 권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종말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재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Behold,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Mt 25,6

|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열 처녀의 비유.'
히메로니무스 프랑켄 2세 작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평신도 주일의 유래

평신도란 교회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을 제외한 모든 세례받은 신자를 가리킵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평신도 주일은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신원과 사명을 되새기며 그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자 한국 주교회의가 1968 년에 제정해 지내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고유한 특별 주일입니다.



< 2000 년 대회년 평신도 대회 모습 >

[평신도 주일 관련 기사 전문] <https://tinyurl.com/c5xkkrn3>

평신도사도직이란 무엇인가요?

평신도사도직이란 교회 설립 목적을 위해 곧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평신도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임무를 가진 평신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으로 파견됩니다.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평신도의 고유한 삶의 자리는 세속입니다. 그렇다면 파견받은 사도로서 평신도가 수행하는 직무 곧 평신도사도직은 한편으로는 교회 성장과 발전에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 고유의 자리인 세속 일에 종사하면서 세속을 성화시키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중의 성격을 지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신도가 교회와 세상 안에서, 곧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지만 동일한 그리스도교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생활 따로 신앙 따로'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교회 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영성 생활을 심화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세속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가정과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또 정직·정의·성실·친절·용기와 같은 사회 생활과 관련한 덕을 존중하며 가꾸어야 합니다(제 2 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교령」 참조).

가자 위기 구호성금 (Gaza Crisis Appeal)

지난 10 월 7 일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0 만 이상의 피난민과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자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성 요한 23 세 교황님께서 1963 년 4 월 11 일 반포하신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회칙이 60 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회칙은 인간의 존경성으로 선언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고, 인간집단의 공동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기준을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안에서 인류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라는 토빗의 유언에 유언에 귀 기울여 보시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모금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금된 금액은 카리타스(Caritas) 호주지부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모금기간] 2023 년 11 월 19 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12 월 17 일 (자선 주일)

[참여방법] 성전 입구에 비치된 성금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교무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카리타스 구호성금 안내 링크] <https://www.caritas.org.au/donate/emergency-appeals/gaza-crisis/>



|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해마다 철마다 새 옷을 사지 않고
한번 산 옷은 오래 입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 0.21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26 강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59 강]

유다인은 왜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을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열왕기 10 부 | 2 열왕 15-17
이사야 1-17 | 미카

떼제(taize) 기도

5 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5 분 기도 -6-] 그것을 붙드는 이들은
행복하다 (잠언 3,13-20)

미사 참례자수

10 월 29 일	성인 56 아이 28	11월 5일(로컬다문화미사)	성인 37 아이 11
-----------	-------------	-----------------	-------------

우리들의 정성 (10 월 28 일(토)~11 월 3 일(금))

김요한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재희	이지영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허준	교무금 \$550 (12 가정) / 봉헌금 \$360			

우리들의 정성 (11 월 4 일(토)~10 일(금))

강원혜	권요순	김요한	양홍석	조성희	교무금 \$280 (5 가정) / 로컬다문화미사		
-----	-----	-----	-----	-----	----------------------------	--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11 월 12 일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11 월 19 일 연중 제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독서	허준 안토니오, 김미현 보나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예물봉헌	요한반	루카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2 일) 요한반 → (19 일) 루카반 → (26)일 마르코반 → (12 월 3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19 일 - 간식) 마르코반

미사성가 안내 ※ 반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11 월 12 일	21 지극히전능하신주여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66 생명의 양식	31 이 크신 모든 은혜
11 월 19 일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41 형제에게 베푸는 것	46 사랑의 송가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